

魚畫同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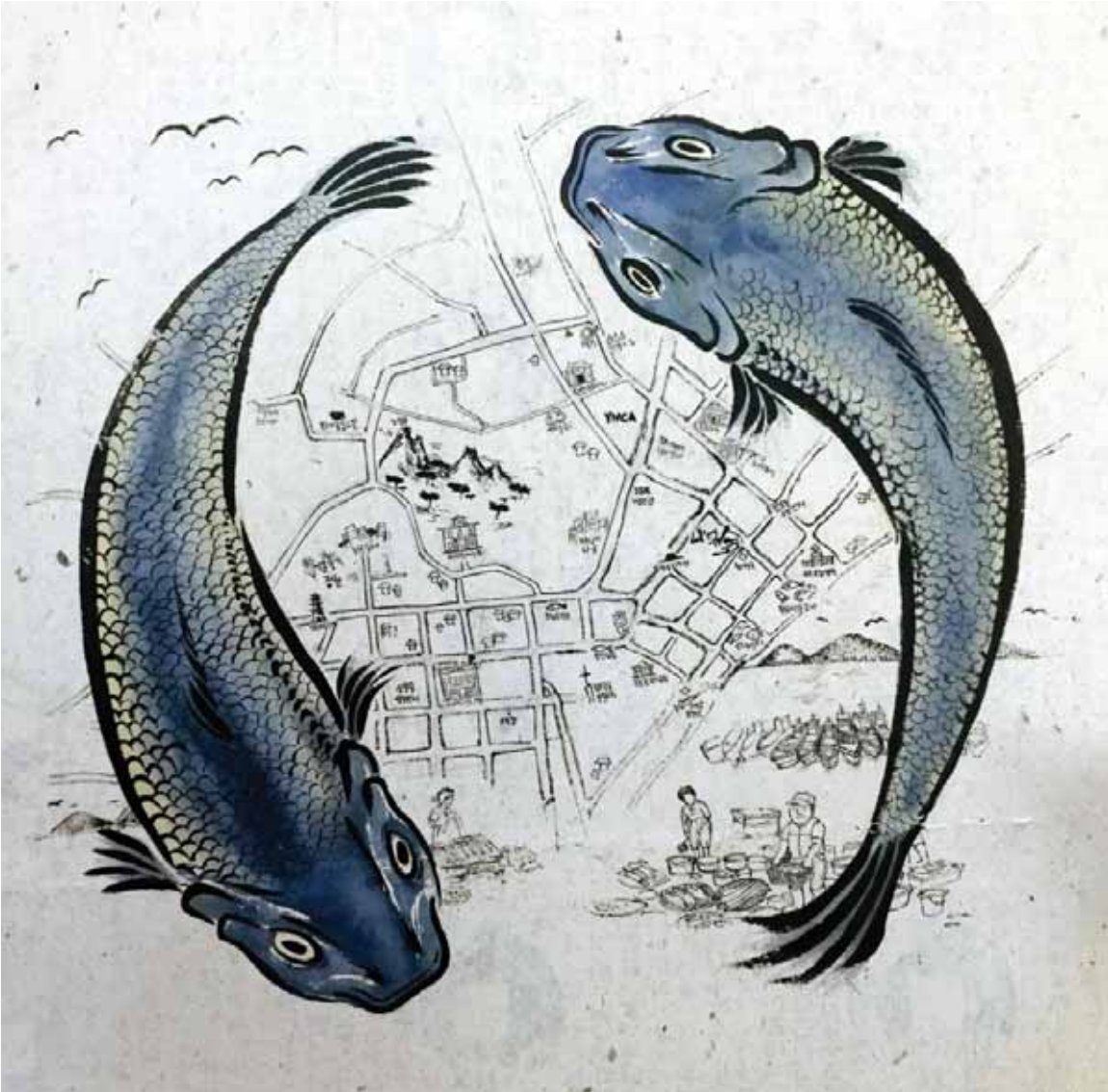
〈여화동동〉



최대웅 작 '무제'

병어·전어 등 '자산어보' 생선 주제
목포 문예조합 '나무숲' 릴레이 전시
내일부터 민어 소재 民民魚畫전
개막식 민어 요리 시식 이벤트

병어, 민어, 전어, 흥어 등 제철 생선들이 현대미술을 만나 작품으로 변신했다.
목포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이 항구도시 목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자산어보'에서 언급한 제철 생선을 주제로 릴레이 전시를 진행한다.
'만사형통 레지던스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레지던시 참여 작가와 지역 주민, 대학생과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레지던시 작가 4명이 돌아가며 매 전시마다 대표 작가를 맡아 지역주민·대학생들을 뭉고 함께 작품을 구상·제작했다.
총괄 기획은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복덕방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정위상무 독립큐레이터가 담당한다.
지난 6월 '병어(떡자)-흑산바다를 건너 온 자산어보'에서 병어 작품을 선보인 데 이어 7월은 민어다.
여름 대표 보양식을 떠올리면 삼계탕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만 우리 조상들은 민어를 즐겨먹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몸은 약간 둥글며 빛깔은 황백색이고 등은 청록색이다. 비늘이 크고 입이 크다. 맛은 담담하고 좋다. 날 것이나 익힌 것이나 모두 좋고 말린 것은 더욱 몸에 좋다"고 기술했다.
27일 시작하는 '백성의 고기, 백성의 그림 민민어화(民民魚畵)' 기획전은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다양한 민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민어 전시 대표작가는 박일정씨다. 목포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박씨는 한국화 기법을 활용한 도자기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나무 토막과 도자기를 활



김아름, 손나래, 염선호 작 '민어, 만호동에 놀다'

용한 '민어배'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참여자로 목포에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익주씨, 전자제품대리점 대표 김병진씨, 전업사 대표 서장권씨 등이 눈에 띈다. 김병진씨는 작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직접 그린 '명자 모사' 작품을 출품한다. 문익주씨('복어와 달' 박제)와 서장권씨(옹무늬 나무단지)는 소장하고 있던 물고기 소재 민속품을 이번 전시를 위해 내놓았다. 작품 의미와 소장하게 된 사연 등을 기록해 함께 전시한다.
최대웅 설치작가와 목포대 미술학과 학생들도 참여한다. 최대웅 작가는 버려진 나무토막을 활용해 민어모형을 만들었다. 크게 벌린 입, 둥그란 눈, 둥글둥글한 비늘 등 특징을 잘 잡았다. 김아름, 손나래, 염선호 학생

은 공동으로 작업한 '민어, 만호동에 놀다' 작품을 선보인다. 직접 그린 만호동 지도를 배경으로 민어 두마리가 포근하게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민어를 주제로 한 전시답게 27일 개막식에서는 민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됐다. 지역 셰프가 민어 회를 뜨고 맛과 요리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오후 6시부터 만호동풍물패가 참여하는 길놀이로 시작으로 국악인 임상욱씨가 나서 사물놀이, 민요공연 등을 진행한다. 또 작품설명과 함께 작가와의 대화도 이어진다.
8월에는 전어, 9월에는 흥어 전시가 이어진다. 문의 010-7183-166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밀가루로 오감만족

금호갤러리 9월 18일까지

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체험놀이 '가루아 가루야'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9월18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밀가루를 이용해 보고, 듣고, 만지고, 맛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 눈높이에 맞춰진 오감만족 체험놀이이다.
밀가루로 그림을 그려보는 '가루나라 방앗간', 밀가루 반죽과 잡곡들을 이용해 빵을 만들어보는 '빵빵나라 제빵소', 직접 국수가락을 뽑고 집, 자동차, 신발 등을 만들어보는 '반죽나라 국수가게', 통밀풍장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통밀나라 정미소' 등 총 4개 체험방으로 구성됐다. 놀이전시(안내원)와 함께 이야기방을 순서대로 이동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다.
24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체험시간은

100분이다. 평일(화~금)은 오후 1시20분, 2시, 2시40분, 3시20분 등 4차례, 주말(토, 일, 공휴일)은 오전 10시20분, 10시50분, 11시20분, 11시50분, 오후 1시20분, 2시30분, 3시05분, 3시45분, 4시20분 등 8차례가 진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사전 예약해야하며 평일은 예약 없이 입장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어린이 2만3000원, 성인 1만7000원.
예약·문의 1599-73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원하시죠?

광주시립미술관
'부채-바람소리'전
8월 14일까지



백준선 작

광주시립미술관이 1층 아트라운지에서 무더위를 이겨내라는 의미를 담은 '부채-바람소리'전을 8월14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구지희, 김영삼, 김재홍, 류현자, 박소원, 백준선, 오견규, 장용림, 장창익, 전명옥, 허탈재 등 한국화가 18명이 참여해 50여점을 선보인다.
부채는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생활용품이었다. 삼국사기에 고려 태조 즉위를 축하하는 의미로 부채를 선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역사가 오래됐다. 최근에도 여름이 되면 멋진 시구가 적히거나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선물한다.
전시에서는 부채 모양을 이용해 소재를 달리한 작가 개성을 만날 수 있다.
이선복 작가는 등을 구부린 호랑이가 빨간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무등산 호랑이'를 출품했고 허탈재 작가는 대나무와 여백을 통해 시원함을 선사한다. 오견규 작가 작품에는 꽃나무 아래 평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전명옥 작가 작품에는 둥그란 눈이 인상적인 파란 물고기가 노닐고 있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요화가회 46번째 회원전

내일~8월 3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는 광주일요화가회가 27일~8월3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제 46번째 회원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영태 명예회장, 김종수 명예회원을 비롯해 서민식 회장, 김명숙, 김미숙, 김성숙, 김유지, 김현우, 민영숙, 박영진, 박희자, 이성태, 윤덕희 등 27명이 참여한다.



김영태 작 '성암 아영장 입구'

일요화가회는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다니며 화폭에 담고 있으며 매해 회원전을 열고 있다.
김영태 명예회장은 푸른 하늘, 보라색산, 초록 나무들이 보이는 색상 대비가 인상적인 '성암 아영장 입구'를 출품했다. 김종수 명예회원의 '풍경'은 자연을 인상파적 시각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서민식 회장은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진 '남해의 추억' 작품을 전시한다.
일요화가회는 지난 1967년 김영태 화백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며 결성된 아마추어 미술애호가 모임이다. 임직순, 박상섭, 오승운, 황영성, 조규일 화백 등이 지도교수를 맡아 전문성을 더했으며 오지호 화백이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의 062-575-8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

- ◆일시 | 2016년 7월 27일 오후6시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주관 | 광주 서구문화원(기획:김정희 시민)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로연가 1층)

제**2**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6년 **8월 15일(월)**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